

카누 전남대표, 전국대회서 금메달 2개 등 총 12개 메달 수확

전남도청·목포대·삼호중, 금2·은4·동4 '꽤거'

전남체육회 전략종목 카누팀도 은메달 획득해

카누 전남대표가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2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전남도청·목포대학교·삼호중학교 카누팀이 충남 부여 백마강카누장에서 열린 제33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청의 최지성은 남자일반부 C-1 200m에 출전해 42초638의 기록으로 울산의 오해성(43초035)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지성은 또 C-1 1000m에 출전해 4분22초409의 기록으로 김이열(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어 2위, C-1 500m에서도 2분142의 기록으로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전남도청의 임성화·김소현·이민아·이진솔 조는 여자일반부 K-4 200m에서 37초736의 기록으로 경남체육회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임성화와 김소현이 조를 이휘 출전한 K-2 500m에서도 은메달, K-2 200m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회를 마쳤다.

전남대표로 출전한 삼호중학교와 목포대학교 카누팀, 전남체육회 카누팀도 메달을 목에 걸었다.

삼호중학교 홍정현과 박도영은 남중부 K-2 200m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목포대학교 신수복, 구도성, 최찬희, 장원우는 남대부 K-4 200m와 500m에서 호흡을 맞추며 은메달 2개 획득했다.

이어 신수복과 구도성은 K-2 200m에 출전해 동메달을 추가로 목에 걸었다.

또한 전남체육회 전략종목 카누팀 정유성과 송지웅은 남자일반부 K-2 200m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하며 전남 카누선수단은 금메달 2개 포함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서선욱기자



전남도청의 이민아(왼쪽부터)·김소현·이진솔·임성화 조가 제38회 전국카누경기대회 여자일반부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뒤 들어보고 있다. (사진=전남도체육회 제공)

강진군, 배드민턴 꿈나무 전국선수권대회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2개팀 800여 명 참여

강진군에서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대한민국 초등학생 배드민턴 꿈나무들의 기량과 실력을 겨루는 전국 선수권 대회가 개최된다.

제63회 전국여름철총별 초등학교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전남배드민턴협회, 강진군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이다.

전국에서 72개팀, 800여 명이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모여 국내 초등학교 선수 중 최강자를 가린다.

이번 대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단체전과 개인전, 28일부터 31일까지 개인전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관중 대회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스포츠 매거 강진군은 매년 약 60여 개의 전

국규모 및 동호인 대회를 개최해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하지만 군은 탁구전용경기장 착공,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조명등 설치,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등 스포츠 시설 개선 및 보완으로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을 확충했다.

이번 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개최가 확정됐다. 군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준비중이다.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대회장 환경정비 및 소독, 대회장 출입시 한방향으로만 이동, AD카드 발급 등 출입



인원 시별을 통한 대회 관계자 외 출입 제한, 일일 팀별 건강상태 점검표 제출, 일일 팀별 동선 점검표 작성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승욱 군수는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 속에 대회 및 전지훈련을 개최하겠다. 선수와 임직원이 강진에서 머무르면서 체류형 관광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강진=김영일기자

'셔틀콕 천재' 잡아라...광주시청 팀 창단 검토

안세영 선수 측, 대학보다 실업팀 희망·체육계 "안세영 품자"

2010년 '양궁 간판스타' 기보배, 2014년 '도마의 신' 양학선, 광주가 고향이나 다른 없는 두 올림픽 챔피언이 실업팀에 가입했다. 기보배는 광주시청팀, 양학선은 수원시청팀, 둘 다 자치단체 직강운동경기부를 택했지만 행선지는 달랐다.

연봉이나 팀 구성원 등 여러 조건들이 영향을 미쳤지만, 고향 광주에 입단할 만한 실업팀이 있는지가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비밀 언덕'이 없던 양학선에게 광주는 선택지에서 빠질 수 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6년 뒤, 이번엔 '셔틀콕 천재' 안세영(광주체고3) 선수가 진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셔틀콕 천재' 외에도 '최연소 국가대표', '주니어스타', '배드민턴 천재소녀' 등 여러 수식어가 붙는 안 선수. 지난해 국제대회 5관왕에 오르면서 세계랭킹도 국내 선수 중 가장 높은 9위지만, 정작 고향 광주에 실업팀이 없어 졸업 후 진로가 큰 고민이다.

대학 진학보다는 실업팀, 다른 지역보다는 고향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지만 차세대 월드스타를 품을 팀이 없어 걱정이다. 현재 대구, 경기, 충남 등 13곳에서 여성실업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광주는 광주은행이 남성팀만 운영하고 있을 뿐 여성팀은 없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지역 체육인들과 안 선수 가족 등의 바람 등을 고려해 배드민턴팀



창단을 검토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배드민턴협회 측도 "광주가 동지를 만들어 주지 못해 안 선수가 다른 시·도 실업팀으로 가게 되면 계약조건으로 7년 동안은 오고 싶어도 광주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며 "안 선수가 광주에서 잡아 주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선수가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광주시청 로고'를 달고 뛰는 것이 애환심이나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적잖다.

160여 개 클럽에 동호인 3만여 명으로, 배드민턴이 광주지역 생활체육 종목 중 저변이 가장 넓은데다 국가대표 배출이 잇따르고 지난 해부터 3년 동안 국제마스터즈대회가 열릴 만큼 배드민턴 도시로서의 탄탄한 위상도 팀 창단 여론을 키우고 있다.

김미희기자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대한체육회 회장 출마 선언

"대다수 국민과 체육인, 대한체육회 환골탈퇴 기다려"

대한체육회 회장 출마를 선언한 전 4선 국회의원이자 전주 우석대 명예총장인 장영달 씨가(72세)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일정으로 그는 문제부의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안 승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이제 대한체육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하면서 "대한체육회는 불공정과 무는 쇠신없는 정책으로 국민들과 체육인들에게 희망보다는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조재범코치 성폭행사건과 고최숙현 선수의 죽음에도 변한게 없다"며 "국민들과 대다수 체육인들은 대한체육회의 환골탈퇴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체육인 장영달의 특이한 이력도 눈길을 끈다.

장 명예총장은 중·고등학교 시절 축구선수 수도로 활약하였으며 대한축구협회 수석부회장과 제34대 대한배구협회 회장도 역임한 바 있으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기 전에는 생활체육배구연합회장 자격으로 전

국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체육인들과의 교감도 활발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각종 체육 행사에 참석 하다보니 정치인 장영달보다 체육인 장영달로 더 잘 알려진 것 또한 특이한 이력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13일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변경을 요청한 건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과 선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관 개정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체육회장 선거 공정성 방안의 주요 내용은 회장직무대행 기간 중 국내, 행사개최 등 IOC위원으로서 업무외에 사무적 업무만 여배제, 문제부와 협의를 통해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선거인 추천 방법을 기존단체 추천 후 추천에서 단체 무작위 추천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천 선정으로 변경, 선거기관을 기존 12일에서 20일로 확대,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및 생중계, 선거 공정성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회 개최 등이다.

문제부는 이 방안에 따른 조속한 선거관



리 규정 개정 이후 공정성 방안 엄정준수 등을 조건으로 정관변경을 허가 하였다.

대한체육회는 체육회장이 차기 회장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체육회장이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정관변경을 요청했다. 대한체육회 회장선거는 오는 2021년 1월 18일에 실시된다.

정승호기자

최지만, 추신수도 못가본 WS무대 밟는다

포스트시즌 12경기서 2홈런 4타점

반지를 찾아 떠난 최지만(탬파베이 레이스)의 여정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마지막 관문만 넘으면 '월드시리즈 챔피언'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다.

최지만이 속한 탬파베이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포퍼에서 열린 휴스턴과 2020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차전에서) 4-2로 이겼다.

최지만은 류현진이 속한 토론토, '악의 제국'으로 통하는 양키스, 3년 전 비겁한 방법을 동원해 트로피를 차지한 휴스턴을 차례로 누르고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탬파베이의 당당한 일원이 됐다.

역대 한국인 타자 중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이는 한 명도 없다. 2005년부터 빅리그에서만 16시즌을 뛴 추신수는 물론 꽤 뚜렷한 족적을 남겼던 최희섭, 강정호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자리다. 이대호와 박병호 역시 마찬가지.

투수로 범위를 넓혀도 꿈의 무대에 발을 디뎠던 한국 선수는 김병현(2001년 에리조나), 박찬호(2009년 필라델피아), 류현진(2018년 LA 다저스) 등 세 명에 불과하다.

이중 우승 반지는 김병현만이 갖고 있다. 최지만의 남은 과제는 내셔널리그 챔피언과 벌이는 월드시리즈 뿐이다. 앞으로 4경기만 더



탬파베이 레이스 최지만인 18일(한국시간)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7차전에서 6회 안타를 때리고 있다.

이거면 최지만의 손에도 우승 반지가 생긴다.

정규시즌에서 부상과 부진으로 42경기 출전 타율 0.230(122타수 28안타), 3홈런, 16타점에 그친 최지만은 가을들어 클러치 히터로 거듭났다.

팀 타선의 주축인 4번타자와 5번타자로 활약한 최지만은 포스트시즌 12경기에서 타율 0.290(31타수 9안타) 2홈런 4타점을 기록하며 중심타선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양키스와의 디비전시리즈 1차전에서는 '3억 달러 사나이' 게릿 폴을 상대로 투런 홈런을 때렸고, 휴스턴과의 챔피언십시리즈 5차전에서는 8회초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솔로 타치를 그려냈다.

뉴시스

'코리안 좀비' 정찬성, 오르테가에 판정패



페더급 타이틀 도전권 획득 좌절

'코리안 좀비' 정찬성(33)이 브라이언 오르테가(29·미국)에 패배해 페더급 챔피언 타이틀 도전권 획득에 실패했다.

페더급 랭킹 4위 정찬성은 18일(한국시간) 18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UFC 파이팅 나이트 180 메인 이벤트에서 2위 오르테가에 0-3 판정패를 당했다.

정찬성을 제물로 15승째(1패 1무효)를 따낸

오르테가는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호주)와 맞붙을 기회를 잡았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데이나 화이트 UFC 대표는 승자에게 페더급 챔피언 타이틀 도전권을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8월 당시 챔피언 조제 알도(브라질)에게 패배해 페더급 챔피언 타이틀 획득에 실패한 정찬성은 타이틀전을 눈앞에 두고 6패째(16승)를 당했다.

둘의 대결은 격투기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정찬성과 오르테가는 지난해 12월 부산 UFC 대회에서 맞붙을 예정이었지만, 오르테가가 대회 직전 부상을 당해 무산됐다.

뉴시스